

벤처투자 시장 동향

(2024.2.1.)

2023년 벤처투자시장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음

'23.11월말 기준 벤처투자 금액은 6조 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되었고 건수로는 36%가 감소.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엔터보안, 패션뷰티 분야는 투자가 증가되었고 블록체인, 홈리빙, 물류/유통등에서 투자가 급감하였습니다. 농수축산도 감소함.

다만,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실적은 전년 대비 건수는 9%, 금액은 11.7%로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보면 반려동물, 환경에너지 등은 성장하였고 대체육시장은 관심이 많이 사라진 분위기 임.

또한 IPO 기대주였던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이 기업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상장을 미루거나 철회하였음.

그러나 '24년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IPO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주춤했던 비상장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에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됨.

1. '23년 분기별 투자금액이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2. 벤처펀드 대부분 투자가 4분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
3. 모태펀드 1차 정기출자 사업 조합결성이 4분기에 완료 예정임을 감안하면 23년말 실적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음

2024년의 벤처투자는 '23년 저점을 찍고 일부 회복할 것으로 전망

1. '23년 「벤처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융자 복합 형태의 선진 벤처금융기법 등이 도입되어 스타트업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는 스타트업이 먼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정보를 넘겨받은 VC가 2차로 투자를 하는 형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을 시범운영 계획.

2. 아울러 '23.11월 하나금융그룹이 민간에서 최초로 벤처모태펀드를 1,000억원규모로 결성하기로 하였음(펀드금액중 60%는 vc에게 배분하고 40%는 직접투자 예정)

'24년 농식품분야 투자 방향.

- 농식품분야에서는 미래기술을 통한 생산 혁신, 환경대응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임.
- 푸드·애그테크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도할 기술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들 산업은 시장의 주목도·성장성이 확인되어 글로벌 투자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임.
- ESG, 기후테크, 신제품 개발 등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함.
- 창업기획자의 농식품 기업 투자 확대, 중간 회수 활성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창업기획자를 운용사로 하는 보육펀드를 추가 조성
- 세컨더리펀드 활성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과 농식품분야 재투자 확대가 필요함.